

그림책을 활용한 표현활동 프로그램이 다문화가정 아동의 문해능력에 미치는 영향*

최 나 야¹⁾

가톨릭대학교 생활과학부 아동학전공

이 연구는 다문화가정의 저학년 아동들을 대상으로 ‘그림책을 활용한 표현활동 프로그램’을 구성 및 실시하여 문해능력에 대한 효과를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경기도 부천시의 다문화가정 2, 3학년 아동 15명이 총 16회기에 걸쳐 다양한 그림책의 내용과 표현기법을 탐색하며 표현활동에 참여하였고 창의적으로 세 권의 그림책을 창작하여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동일지역의 저소득층 일반 아동 15명을 비교집단으로 하여 프로그램 시행 전후에 읽기 유창성, 독해력, 받아쓰기 검사를 각각 실시하였다. 비모수검증인 맨 휘트니 유 검증과 윌콕슨 부호순위 검증 결과, 다문화가정 아동들은 사전검사에서 비교집단 아동들에 비해 읽기 유창성, 독해력, 받아쓰기 모두 유의하게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17주의 중재 이후에 다문화가정 아동들은 읽기 유창성과 독해력에서, 비교집단 아동들은 읽기 유창성에서 유의한 향상을 보였다. 프로그램 시행 후에 받아쓰기에서는 여전히 집단 차이가 남아있었으나, 다문화가정 아동들의 두 가지 읽기 수행에서는 비교집단과의 차이가 사라졌다. 따라서 그림책 활용 표현능력 프로그램은 문해능력, 그 중에서도 읽기능력 향상에 효과적인 프로그램이라고 결론내릴 수 있다.

주요어 : 그림책, 표현활동 프로그램, 다문화가정 아동, 문해능력

* 이 연구는 2011년도 가톨릭대학교 교비연구비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음.

이 논문은 2011년 한국인간발달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포스터 발표한 연구를 발전시킨 것임.

1) 교신저자 : 가톨릭대학교 생활과학부 아동학전공, 조교수 (E-mail : choinaya@catholic.ac.kr)

I. 서론

최근 우리 사회는 다문화가정의 증가로 급속하게 다문화사회로 변모하였다. 다문화가족지원법(2008)에 따르면 ‘다문화가정’은 배우자 중 한 사람이 한국인인 경우로 규정되어 있으나, 이 연구에서는 두 배우자 모두 외국 국적을 가진 외국인 근로자 가정까지 포함한 넓은 범주로 접근하고자 한다. 국제결혼가정과 외국인 근로자의 자녀들 중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는 각각 78.6%, 62.9%로 압도적으로 많고, 합산한 수는 2008년 16,785명에서 2010년 24,701명으로 가파른 증가 추이를 보인다(교육과학기술부, 2010).

다문화가정의 아동들이 지닌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서 언어발달 지연(곽철호, 2009; 권순희, 2006; 권희연, 이미숙, 전병운, 2010; 배소영, 김미배, 2010; 우현경, 정현심, 최나야, 이순형, 이강이, 2009; 정은희, 2004; 채혜경, 2008; 최나야, 우현경, 정현심, 박혜준, 이순형, 2009)과 낮은 학업성취도(오성배, 2005, 2007; 조영달, 2006)는 대표적으로 지적되어온 문제이다. 보건복지가족부(2010)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다문화 가정 아동 10명 중 4명꼴로 언어발달의 지연, 지체, 장애를 보인다고 한다.

다문화가정 아동들이 학령기에 도달한 이후에는 언어능력 중에서도 문해능력의 결핍에 따르는 학습상의 어려움이 심각해질 수 있다(권순희, 2007; 김갑성, 2006; 보건복지가족부, 2007; 오성배, 2006; 윤희원, 2008; 조미정, 정은희, 2009; 조영달, 윤희원, 박상철, 2006; Cooney & Hay, 2005). 이들의 읽기와 쓰기능력이 일반 아동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므로, 학

교적응과 학업성취 차원에서 예방과 중재가 요구된다.

사회경제적 수준이 높은 가정에서 성장하는 일부 다문화가정 아동들은 비록 속도에서 차이는 있으나 정상적인 언어 습득에 성공한다(이수정, 신지철, 김향희, 김화수, 2008). 반면, 대부분의 다문화가정 아동들은 어머니의 한국어능력 부족에 기인하는 어려움뿐만 아니라,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아 빈곤 문제까지 이중적으로 겪고 있다(강희양, 김태호, 2011; 문혁준, 최윤경, 서소정, 2009; 이해경, 2005).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전국의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실시한 첫 전수조사에 따르면, 이들의 월 평균 가구소득은 100-200만원 미만 이 가장 많고(38.4%), 100만원 미만도 21.3%를 차지해 전반적으로 가구소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적절한 언어 교육과 자극이 부족한 다문화가정의 아동들이 보이는 어려움을 중재하기 위한 교육·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시행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언어발달과 학습 측면에서 이들이 지닌 어려움의 양상이 그동안의 연구들을 통해 충분히 밝혀졌으므로, 이제는 다문화가정 아동의 특수성을 고려한 ‘맞춤형’ 언어중재 프로그램이 각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권희연 등, 2010).

현재까지 다문화가정 아동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언어중재 프로그램 연구는 소수에 불과하다. 몇 편의 선행연구 결과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조미정과 정은희(2009)의 연구에서는 글의 내용 파악에 어려움을 보이는 다문화가정의 4학년 아동들이 6주간 14-18회의 독서활동에 참여한 후에 독해력이 향상되었다.

그리고 만 4, 5세 다문화가정 아동들에게 그림책을 활용한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했을 때 이들의 수용언어와 표현언어가 유의하게 향상되었다(김민화, 남명자, 고태순, 정지나, 2010). 이 연구에서 언어발달 증진에 초점을 둔 활동은 총 12회기 중 4회기뿐이었음을 고려할 때, 전체 회기에 활용되었던 그림책이 그 자체로 언어발달에 강력한 매체임을 알 수 있다. 역시 만 5세 다문화가정 유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12주 동안 매주 한 권씩 그림책을 읽어주었을 때 수용언어와 표현언어의 향상이 나타났다(선애순, 권순황, 2010). 만 4세 다문화가정 유아들의 가정을 방문하여 15회기 동안 언어발달 프로그램을 실시한 강희양과 김태호(2011)의 연구에서는 수용언어에서 향상이 나타났으나 표현언어는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이 연구의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친밀감 형성이나 어휘력 증진에 내용이 집중되어 있어 표현언어의 유의한 향상이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상과 같이 언어중재 프로그램에 참여한 다문화가정 아동들에 대한 연구 자체가 적은 데다,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실시 전후에 문해능력 변화를 살펴본 연구는 극히 드물다.

아동이 능숙한 독자가 되기 위해서 읽기 유창성의 발달이 특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다문화가정 아동들의 읽기 유창성을 살펴본 연구는 드물다(윤준채, 송영복, 2010). 이들의 읽기 문제는 주로 텍스트의 이해와 같은 포괄적 수준에서만 논의되었고(조영달 등, 2006), 해독, 어휘, 유창성, 독해력 등과 같은 미시적 차원에서는 다루어지지 않았다. 초등학교 저학년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기반 읽기능력에 관한

연구(배소영, 김미배, 2010)는 입학한 다문화가정 아동의 해독력을 조기에 평가하여 읽기 유창성을 습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며, 텍스트를 중심으로 한 평가가 유용할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학령기 다문화 가정 아동들이 지닌 다양한 읽기 문제에 접근하여 구체적인 처방을 내리기 위해서 보다 세부적인 평가와 그에 따른 중재 결과의 분석이 요구된다.

또한 다문화가정 아동들의 문해능력 지체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읽기능력과 비교해 이들의 쓰기능력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를 실시한 연구는 더욱 찾아보기 힘들다. 의사소통의 주요한 수단인 쓰기는 전체 교육과정에서 모든 학습활동의 주요 수단인 동시에 직업기술로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김동일, 홍성두, 구연정, 2008). 그동안 주로 학습장애 등을 지닌 특수아동들에 초점을 맞추어 쓰기능력을 연구해온 것에서 더 나아가 다문화가정 아동들의 쓰기능력을 평가하고 중재를 위한 시사점을 얻어낼 필요가 제기된다.

한편, 다문화가정 아동들과 일반 아동들의 언어능력을 비교함에 있어서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상당수가 저소득층에 속하는 다문화가정과 중산층 이상의 일반가정을 비교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가정의 소득수준이 서로 유사한 집단의 아동들을 비교집단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또한 많은 연구들이 결혼이민자인 어머니를 둔 국제결혼가정에 한정하여 다문화가정 아동들을 살펴보았으나, 외국인 근로자들이 형성한 가정과 그 자녀들의 수가 상당하며,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경우에 자녀가 경험하는 언어발달상의 문제는 더욱 심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대상

의 폭을 넓힐 필요가 있다.

다문화가정 아동들에게 절실하게 요구되는 언어중재 프로그램의 방식에 대한 고민을 통해 그림책이라는 매체를 떠올릴 수 있다. 그림책을 활용한 아동 대상 프로그램은 문학적 접근법을 취하여 아동의 경험, 느낌 지식을 그림책의 내용과 연결하고 본문에 대한 의미를 구성하며 본문에 대한 다양한 반응을 창안해 가는 방법이다(김민화 등, 2010).

그림책은 아동의 언어발달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성인과 아동의 그림책 읽기 상호작용을 통해 아동은 다양한 어휘와 복잡한 문장을 습득하고, 듣기와 말하기 능력이 발달하며, 이야기 이해력이 향상되고, 무엇보다도 흥미롭고 즐거운 언어경험을 하게 된다(한유진, 2000). 문해 발달과 직결되는 영유아의 그림책 경험은 읽기와 쓰기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유향선, 1997; Adams, 1990; Mason, 1992; Morrow, 1988a, 1988b).

그림책은 영유아뿐만 아니라 학령기 아동에게도 적합한 읽을거리이다. 요즘에는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에도 다양하고 수준 높은 그림책이 텍스트로 수록되고 있다. 그동안의 연구 경향을 살펴보면, 학령기 아동들보다는 영유아들을 대상으로 그림책을 통한 성인과 아동의 상호작용이나 그림책이 문해 발달에 미치는 영향이 탐구되어왔다. 학령기 초기의 아동들도 그림책의 주요 독자에 해당하므로 이들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련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그림책은 정제된 언어를 담은 문학적 매체일 뿐만 아니라, 다양한 표현기법을 아름답게 보여주는 하나의 예술 장르이기도 하다.

미학적 관점에서 그림책의 서술 구조를 바라보면, 그림책은 그림이라는 실과 텍스트라는 실로 짜인 직조물과 같으므로 그림과 텍스트를 명확히 분리해서는 안 된다(Thiele, 1990/2010). 그림책의 그림은 상보적으로 글과 어울리며 글에 비해 더 풍부한 내용을 독자에게 전달한다. 따라서 그림책의 독자에게는 글 못지않게 그림을 이해하는 능력이 요구된다. 이러한 입장에서, 아동이 수준 높은 그림책들의 다양한 표현기법을 탐색하고 미술활동을 통해 스스로 표현하면서 창작에 참여하는 것은 넓은 의미의 문해 발달에 영향을 주리라 예상된다. 그림책의 텍스트를 경험하는 것은 학령초기 아동의 대표적인 읽기 양식이며, 미술적 표현은 쓰기 표현과도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이 연구는 다문화가정의 저학년 아동들을 대상으로 ‘그림책을 활용한 표현활동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대상아동의 문해능력 증진에 대한 효과를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동일한 지역의 저소득층 일반 아동들을 비교집단으로 하여 사전-사후 검사 결과를 비교함으로써, 이 프로그램이 다문화가정 아동의 읽기능력과 쓰기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 살펴볼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가정 아동과 일반 저소득가정 아동의 읽기 및 쓰기능력에 차이가 있는가?
2. ‘그림책을 활용한 표현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한 다문화가정 아동과 참여하지 않은 일반 저소득가정 아동의 읽기 및 쓰기능력은 프로그램 실시 이전과 비교하여 각각 차이가 있는가?

3. ‘그림책을 활용한 표현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한 다문화가정 아동과 참여하지 않은 일반 저소득가정 아동의 읽기 및 쓰기능력에 차이가 있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이 연구에 참여할 다문화가정 아동을 모집하기 위해 경기도 부천시의 초등학교 2곳의

다문화가정 담당교사에게 프로그램의 취지를 설명하였다. 교사를 통해 부모에게 연락하였고 참여 의사를 밝힌 2-3학년 아동 총 15명을 선정하여 실험집단에 배정하였다. 학년별로는 2학년 8명, 3학년 7명, 성별로는 남아 7명, 여아 8명이 참여하였다. 가정의 소득수준을 조사한 결과, 월 100만원 미만이 1가구(6.7%), 100-150만원 미만이 7가구(46.7%), 150-200만원 미만이 5가구(33.3%), 200-250만원 미만이 2가구(13.3%)로 나타났다.

또한 통제집단으로 인근의 지역아동센터에 등록된 초등학교 2-3학년 아동 15명을 선정하

표 1. 연구대상 아동

번호	학년	성별	부모 출신국가	아버지 직업	어머니 직업	부모 한국 체류 기간
1	2	남	부모-파키스탄	자영업	전업주부	3년
2	2	남	아버지-파키스탄	공장 생산직	공장 생산직	18년
3	2	남	어머니-필리핀	환경미화원	외국인노동자 상담	12년
4	2	남	어머니-몽골	교회 선교사	공장 생산직	4년
5	2	여	어머니-태국	건축설비일용직	식당 종업원	9년
6	2	여	어머니-필리핀	공장 생산직	공장 생산직	14년
7	2	여	어머니-중국	공장 생산직	경리	12년
8	2	여	어머니-중국	여행사 가이드	아르바이트 (사회복지관)	10년
9	3	여	어머니-중국	인테리어 설비	아르바이트 (중국어교육)	10년
10	3	남	부모-파키스탄	자영업	전업주부	3년
11	3	여	아버지-파키스탄	공장 생산직	공장 생산직	18년
12	3	남	어머니-필리핀	공장 생산직	공장 생산직	11년
13	3	여	어머니-베트남	노래방 종업원	식당 종업원	12년
14	3	여	어머니-베트남	자영업	전업주부	14년
15	3	남	어머니-중국	배관 설비	중국어 방문교사	13년

였다. 이들은 실험집단 아동들과 동일한 2곳의 초등학교의 재학 중으로, 방과 후에 센터에서 보호를 받는 아동들이다. 지역아동센터의 담당자에게 연구의 내용에 대해 설명하였고 아동이 속한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한 정보를 얻어 소득수준이 실험집단 아동들과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아동 15명을 최종적으로 선정하였다. 이들은 모두 한국인 부모를 둔 아동들이다. 실험집단과 거의 유사하게 2학년 8명, 3학년 7명, 남아 8명, 여아 7명이 참여하였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아동들의 학년, 성별, 부모에 대한 정보는 표 1과 같다.

2. 연구 도구

읽기 유창성

기초학습기능 수행평가 체제(김동일, 2000)의 읽기 1 검사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검사는 아동이 주어진 시간 내에 얼마나 많은 글자를 정확하게 읽는가를 측정하는 도구로, 읽기 검사 자료 1-(1)과 1-(2)로 구성되어 있다. 읽기 자료 1-(1), 1-(2), 1-(1)의 순서로 총 세 번 읽게 하여 세 개의 점수 가운데 중간치를 최종 점수로 한다.

독해력

기초학습기능 수행평가 체제(김동일, 2000)의 읽기 2 검사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아동이 직접 문장을 읽으면서 보기 3개 중 문맥에 맞는 적절한 단어를 선택한다. 이 도구는 집단용 검사로서 3분 동안 총 23문항을 실시하며, 옳게 선택한 문항수가 아동의 점수가 된다. 읽기 1 검사와의 상관은 .96으로 매우 높

다. 이 두 검사는 초등학교 저학년생의 읽기 능력을 대표하는 검사로 사용될 수 있다(김동일, 2000).

받아쓰기

기초학습기능 수행평가 체제(김동일, 2000)의 읽기 1 연습용 텍스트 10개에서 각 1개씩 추출한 문장 10개로 받아쓰기 문항을 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4-8어절로 이루어져 있다. 전체 문항을 합하면 185음절로, 음절 단위로 1점씩 잘못 쓴 개수를 제외하여 점수를 부여하였다(185점 만점).

그림책

이 프로그램에서는 모두 16권의 그림책이 활용되었다(표 2 참조). 이 책들을 선정하기 위해 언어의 수준과 흥미 면에서 초등학교 저학년 생들이 읽기에 적합한지(발달적 적합성), 텍스트의 수준이 우수한지(문학적 적합성), 그림의 수준이 높아 예술적이고 심미적인지(예술적 적합성), 다양하고 참신한 표현기법이 시도되었는지(표현기법의 적합성)의 네 가지 측면을 고려하였다.

3. 연구 절차

프로그램 구성 및 보조연구자 훈련

이 연구는 연구자가 속한 대학의 지역사회연계 봉사 프로그램인 ‘배움, 나눔, 생명’ 사업의 취지에 따라, 다문화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계획되었다. 다문화가정 아동들이 지닌 어려움을 중재하기 위한 일환으로 그들의 문해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고안하게

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저학년 아동들의 학습방식과 흥미수준을 고려하여 그림책을 중심 매체로 이용하는 문해활동들로 이루어져 있다. 교사가 16회기 동안 매주 독특한 표현기법을 사용한 그림책을 한 권씩 읽어주고(읽기와 듣기), 아동들은 그림책의 내용과 기법을 탐색하고 미술과 말하기, 쓰기를 활용하는 표현활동에 참여하였다. 즉, 이 프로그램에는 미술활동뿐만 아니라, 읽기, 듣기, 말하기, 쓰기의 언어활동이 포함된다. 궁극적으로는 소집단별로 창의적인 그림책을 구성하여 실제로 제작하는 과제를 부여하였다.

이 프로그램의 진행을 위해 아동학과 함께 유아교육학 또는 사회복지학을 복수전공하는 학부 4학년생 6명을 보조연구자로 모집하였다. 이들은 모두 연구자가 지도하는 그림책 동아리의 회원들로 ‘언어지도’와 ‘아동문해교육’ 과목을 수강하였고, 1년간 그림책에 대한 이론 세미나에 참여하였으며, 교육활동집 ‘그림책을 활용한 통합적 유아교육활동’의 구성 및 집필에 참여하였다. 이들을 대상으로 표준화 검사인 연구 도구를 사용하여 아동의 읽기능력을 측정하는 방법을 훈련시켰다. 받아쓰기의 경우 1명의 연구원이 실시하고, 채점은 연구자가 단독으로 실시하였다. 또한 이들은 구체적인 회기별 프로그램을 이끌며 2명씩 짝을 이루어 각각 5명의 참여 아동을 맡아 멘토 역할을 하였다.

사전 검사

실험집단은 연구자가 속한 대학에서 제공한 공간에서, 통제집단은 아동들이 등록된 지역

아동센터의 교실에서 검사에 참여하였다. 읽기 2 검사와 받아쓰기를 집단으로 실시하고, 읽기 1 검사는 6명의 보조연구자가 나누어 진행하며 각 아동에게 개별적으로 실시하였다.

16회기의 프로그램

참여 아동들은 매주 정해진 시간에 승합차를 이용하여 연구자가 속한 대학교를 방문하였다. 각 회기는 매주 2시간씩 진행되었다. 가장 먼저 담당교사가 회기별 그림책을 전체 아동에게 큰 소리로 읽어 주었다. 아동들은 교사와 함께 책의 내용과 표현기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어서 그림책의 각 표현기법을 직접 시도하는 미술활동을 실시하였다. 표현기법의 연장선에서 글 없는 그림책, 패러디 그림책, 팝업 그림책과 정보책 등의 장르를 소개했고, 문학적 접근을 위해 시점과 이야기의 구조를 다루었다. 색모래, 물감 스펀지, 다양한 종이, 잡지와 신문 및 각종 사물, 점토, 크레파스 등의 재료를 이용하고, 팝업 카드, 콜라주 그림, 음식 모형, 협동화 등의 작품을 구성하였다. 또한 글자 찾기, 십자말풀이, 낱말 연결해 문장 만들기, 집단 마인드맵, 익살스러운 이야기로 바꾸기 등의 언어활동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언어활동에는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가 골고루 포함되었다. 12차 회기부터는 모둠별로 그림책을 만드는 실제적인 활동을 진행하였다.

최종적으로 완성된 원고를 세 권의 그림책으로 편집하여 인쇄하였고, 마지막 17차 회기 때는 참여아동들의 부모와 교사 등을 초청하여 프로그램 과정을 담은 동영상 상영, 그림

표 2. 16회기 프로그램의 내용

회기	주제	읽어주고 이야기 나눈 그림책	표현활동 내용
1	오리엔테이션	「구름빵」 백희나 글·김향수 사진(2004). 한솔수북.	프로그램 소개 인사 및 모듈별 멘토 선정
2	글 없는 그림책 색모래 기법	「노란 우산」 류재수 그림(2007). 보림.	글 없는 그림책 소개 색모래로 그리기
3	패러디 그림책 물감 스펀지 기법	「아기 늑대 세 마리와 못된 돼지」 유진 트리비자스 글· 헬렌 옥슨버리 그림(2006). 시공주니어.	패러디의 이해 스펀지로 그리기
4	팝업 그림책 종이공예 기법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루이스 캐럴 글·존 테니얼 그림· 로버트 사부다 제작(2004). 넥서스주니어.	입체책 소개 팝업 카드 만들기
5	정보 그림책 클라주 기법	「안녕 유럽」 이보나 호미엘레프스카 글·그림(2010). 보림.	정보책 소개 클라주로 표현하기
6	점도 기법	「요리사가 되고 싶어」 펠리시티 브룩스키이스 뉴웰 글· 조 리치필드 그림(2007). 문학동네어린이.	점도 기법 플레이도로 음식모형 만들기
7	스크래치 기법	「까만 크레파스」 나카야 미와 글·그림(2002). 웅진주니어.	크레파스 스크래치 기법 협동화 작품 구성하기
8	날말과 문장	「날말공장나라」 아네스 드 레스트라드 글· 발레리아 도캄포 그림(2009). 세웅출판.	단어로 문장 만들기 심자말풀이 게임
9	마인드맵 해학적 요소	「머느리 방귀」 이상교 글·나현정 그림(2009). 시공주니어.	집단 마인드맵, 종이한복 만들기 익살스러운 이야기 구성하기
10	이야기의 시점	「곰 인형 오토」 토미 웅거러 글·그림(2001). 비룡소.	다양한 시점 이해 사물 입장에서 이야기 구성하기
11	의성어와 의태어 제작회의	「월월 간다」 권정생 글·김용철 그림(2003). 국민서관.	의성어와 의태어의 활용 몸짓으로 동사 표현하기 게임 모듈별 주제와 기법 결정
12	이야기의 구조	「할까 말까」 김희남 글·윤정주(2008). 한솔수북.	발단-전개-위기-절정-결말의 개념 그림책 제작 작업 1
13	캐릭터 이야기의 결말	「몬스터, 제발 나를 먹지 마세요!」 카를 노락 글· 카를 크너이트 그림(2010). 다룬세상.	캐릭터 간의 공통점 반전으로 재미있는 이야기 만들기 글자 찾기 게임, 그림책 제작 작업 2
14	책 만드는 과정	「도서관 생쥐2 - 글짓기 친구」 다니엘 커크 글·그림(2009). 푸른날개.	책을 만드는 과정 탐색 그동안의 표현기법 되돌아보기 그림책 제작 작업 3
15	글과 그림의 관계	「달샤베트」 백희나 글·그림(2010). 스토리보울.	글에 맞는 그림 구성하기 그림책 제작 작업 4
16	그림책 완성	「너는 특별하단다」 맥스 루카도 글 지음· 세르지오 마르티네즈 그림(2002). 고슴도치.	그림책 제작 작업 5 물린페이퍼 작성 사진 및 동영상(인터뷰) 촬영
17	출판기념회	모듈별 그림책 완성작 「곰 아주머니의 탄뽕집」, 「침대 밑 행복한 동산」, 「2030, 우리는」	그림책 낭독, 작가 사인회, 참여과정 동영상 상영, 그림책 판매

표 3. 예시 활동(11회기)의 내용

활동제목	의성어와 의태어 그림책 제작회의	그림책	「훨훨 간다」 권정생 글·김용철 그림(2003). 국민서관.
활동주제	의성어와 의태어의 활용 몸짓으로 동사 표현하기 게임 모둠별 주제와 기법 결정		
활동목표	1. 의성어와 의태어의 의미를 알고 상황에 맞게 적절히 사용할 수 있다. 2. 의성어와 의태어를 정확한 발음으로 읽을 수 있다. 3. 창의적인 방법으로 의성어와 의태어를 표현할 수 있다.		
준비물	「훨훨 간다」 그림책, 동작 그림과 의성어/의태어 연결하기 활동지(뒷면은 빙고게임 용지로 활용), 의성어/의태어 표, 동사 카드, 연필, 지우개		
단계(시간)	활동내용		
도입(5)	1. 그림책의 표지 탐색하기 - 그림책 「훨훨 간다」의 표지를 보고 어떤 내용인지 추측해 본다. - 교사는 그림책의 제목과 지은이, 출판사 등을 소개해 준다.		
(20)	2. 교사가 책을 흥미롭게 읽어준다. 3. 책을 다 읽은 후, 함께 줄거리를 정리해 본다. 모든 아동이 차례로 사건을 말해보도록 한다. 예) 아동1 : 옛날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었어요. 아동2 : 할머니가 할아버지한테 무명을 이야기랑 바꿔오라고 했어요. - 교사는 아동들이 내용을 떠올리는 데에 도움이 되도록 그림책을 한 장씩 넘기며 그림을 보여준다. - 차례인 아동이 말하기 어려워하거나 말하지 못하면 다른 친구들이 도와줄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한다.		
(20)	4. 줄거리를 회상한 뒤, 본문에 나왔던 의성어와 의태어를 함께 읽어본다. 해당 어휘에 형광색 테이프를 붙여 강조한다. - 훨훨 온다, 성큼성큼 걷는다, 기웃기웃 살핀다, 콧 집어 먹는다, 훨훨 간다. 5. 의성어는 소리를, 의태어는 모양을 나타내는 말이라는 개념을 알려준다. - 동사로만 동작을 나타내는 것보다 의성어와 의태어를 적절히 사용해서 더 풍부하게 묘사할 수 있다고 알려준다. - 그림과 함께 의성어, 의태어를 좌우에 제시한 활동지를 나누어 준다. 무슨 그림인지, 어떤 표현과 어울리는지 이야기 나누고 선을 그어 연결한다(꼬르륵꼬르륵, 철썩철썩, 쿵쿵, 툇툇툇툇툇, 꼬꼬댁꼬꼬, 둥둥, 강충강충, 후닥닥, 대롱대롱, 두리번두리번, 뒹뒹뒹뒹, 방긋방긋).		
전개	6. 의성어와 의태어 표를 나누어 주고, 하나씩 함께 읽어본다. - 어떤 느낌이 드는지, 어떤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을지 이야기 나눈다. 7. 5단계에서 활용한 활동지의 뒷면을 이용해 빙고게임을 한다. - 6단계의 의성어/의태어 표를 보고 각 아동이 빙고 칸 안에 낱말을 직접 쓰도록 한다.		
(20)	8. 동작을 나타내는 단어를 몸짓으로만 표현하고 맞추는 게임을 한다. - 한 명씩 차례로 교사가 제시하는 낱말카드를 본다. 낱말카드를 읽은 아동은 몸짓으로만 낱말을 설명한다(마시다, 먹다, 뛰다, 걷다, 기다, 열다, 닫다, 두드리다, 던지다, 흔들다, 날다, 넘어지다, 춤추다, 노래하다, 울다). - 나머지 아동들은 어떤 동작인지 생각해서 낱말을 맞춘다. - 정답 동사에 어떤 의성어나 의태어를 붙일 수 있는지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본다. - 교사는 정답 동사를 칠판에 쓰고, 아동들이 제시한 의성어나 의태어가 그 동사에 어울리는 경우 칠판에 받아 써 준다.		
(30)	8. 세 모둠으로 따로 모여 다음 회기부터 진행될 그림책 제작을 준비한다. - 무엇에 대한 이야기를 꾸밀지 주제를 결정한다. - 글과 그림을 어떤 기법으로 표현할지 대략 결정한다.		
마무리(5)	9. 「훨훨 간다」에서 나왔던 표현 <훨훨 온다, 성큼성큼 걷는다, 기웃기웃 살핀다, 콧 집어 먹는다, 훨훨 간다>를 순서대로 다시 떠올려본다. 10. 오늘 나왔던 의성어나 의태어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을 한 가지씩 말해 본다. 11. 모둠별로 결정한 그림책의 주제가 무엇인지 발표하게 한다. 12. 다음 회기를 위한 공지사항을 전달한다.		

책 낭독, 작가 사인회 등으로 진행된 출판기념회를 가졌다. 전체 회기의 내용은 표 2에 요약하였고, 예시 활동을 표 3에 제시하였다.

4) 사후 검사

사후 검사는 사전 검사가 실시되고 4개월 2주 후에 동일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읽기 1 검사는 개별적으로, 읽기 2 검사와 받아쓰기는 집단으로 실시하였다.

4. 자료 분석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의 사전점수 및 사후점수 비교를 위해 비모수검증인 맨 휘트니 유 검증(Mann-Whitney *U* test)을 실시하였다. 또한 집단별로 사전검사와 사후검사의 점수가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해 비

모수검증인 윌콕슨 부호순위 검증(Wilcoxon signed-rank test)을 실시하였다.

III. 결과 및 해석

1. 실험-통제집단 사전 점수 비교: 맨휘트니 유 검증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기에 앞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점수 차이를 비교한 결과, 읽기와 쓰기에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은 유의한 점수 차이를 보였다. 표 4에 제시한 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읽기 유창성(실험집단 $M=148.07$, $SD=112.18$; 통제집단 $M=243.47$ $SD=41.57$; $p<.05$)과 독해력(실험집단 $M=10.67$, $SD=7.08$; 통제집단 $M=16.13$,

표 4.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 점수 비교

(실험집단 $n=15$, 통제집단 $n=15$)

변수	집단	M (SD)	중위수 (범위)	평균 순위	순위합	Mann- Whitney U	Z
읽기 유창성	실험	148.07 (112.18)	165 (305)	11.87	178.00	58.00	-2.26*
	통제	243.47 (41.57)	233 (144)	19.13	287.00		
독해력	실험	10.67 (7.08)	9 (21)	12.10	181.50	61.50	-2.12*
	통제	16.13 (4.36)	17 (12)	18.90	283.50		
받아 쓰기	실험	103.47 (85.39)	156 (182)	11.10	166.50	46.50	-2.74**
	통제	177.73 (6.61)	178 (23)	19.90	298.50		

* $p<.05$, ** $p<.01$

$SD=4.36$; $p<.05$), 받아쓰기(실험집단 $M=103.47$ $SD=85.39$; 통제집단 $M=177.73$ $SD=6.61$; $p<.01$)에서 모두 다문화가정 아동집단이 저소득가정 아동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낮은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사전-사후 점수 비교: 윌콕슨 부호순위 검증

총 16회기의 프로그램의 실시 전후에 실험

집단과 통제집단의 읽기 및 쓰기능력 점수에 각각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윌콕슨 부호순위 검증을 실시하였다. 음의 순위는 프로그램 시행 전에 비해 시행 후 점수가 더 낮아진 경우이며, 양의 순위는 프로그램 시행 전에 비해 시행 후 점수가 더 높아진 경우이다. 동률은 프로그램 시행 전과 시행 후의 점수가 같은 경우이다.

먼저 실험집단의 사전-사후 평균점수를 살

표 5.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프로그램 사전-사후 읽기 및 쓰기 능력의 평균점수 변화

(실험집단 $n=15$, 통제집단 $n=15$)

변수	집단	사전	사후
		$M(SD)$	$M(SD)$
읽기 유창성	실험	148.07(112.18)	184.00(142.33)
	통제	243.47(41.57)	268.53(59.84)
독해력	실험	10.67(7.08)	15.67(5.75)
	통제	16.13(4.36)	17.47(3.46)
받아 쓰기	실험	103.47(85.39)	113.20(77.35)
	통제	177.73(6.61)	176.80(5.73)

표 6.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사후 점수 차이

(실험집단 $n=15$, 통제집단 $n=15$)

변수	집단	음의 순위			양의 순위			동률	Z
		N_a	평균 순위	순위 합	N_b	평균 순위	순위 합		
읽기 유창성	실험	2	4.25	8.50	12	8.04	96.50	1	-2.76**
	통제	3	3.83	11.50	9	7.39	66.50	3	-2.16*
독해력	실험	0	.00	.00	12	6.50	78.00	3	-3.07**
	통제	2	3.50	7.00	7	5.43	38.00	6	-1.85
받아 쓰기	실험	4	6.88	27.50	8	6.31	50.50	3	-.90
	통제	6	8.58	51.50	7	5.64	39.50	2	-.43

* $p<.05$, ** $p<.01$

a 사후점수<사전점수, b 사후점수>사전점수, c 사후점수=사전점수.

해보면, 프로그램에 참여한 이후에 읽기 유창성, 독해력, 받아쓰기에서 모두 향상을 보였다(표 5, 표 6 참조). 이중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읽기 유창성과 독해력에서 나타났다. 한편 통제집단은 읽기 유창성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표 5, 표 6 참조).

실험집단의 경우, 읽기 유창성에서 사전보다 사후점수가 더 낮아진 아동은 2명, 사전보다 사후점수가 높아진 아동은 12명, 사전점수와 사후점수가 같은 아동은 1명으로 프로그램 시행 전후 유의한 점수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Z=-2.76, p<.01$). 독해력에서도 사전보다 사후점수가 높아진 아동이 12명, 사전점수와 사후점수가 같은 아동은 3명으로 프로그램 사전 사후 유의한 점수 차이가 나타났다($Z=-3.07, p<.01$). 그러나 받아쓰기에서는 프로그램 시행 전후, 유의한 점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통제집단은 읽기 유창성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사전보다 사후점수가 낮아진 아동은 3명, 사전보다 사후점수가 높아진 아동은 9명, 사전점수와 사후점수가 같은 아동은 3명

으로 나타났다($Z=-2.16, p<.05$). 이는 4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읽기 유창성이 자연적으로 향상된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평균점수를 볼 때, 실험집단의 향상 폭보다는 훨씬 적은 수준이다. 독해력 및 받아쓰기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3. 실험-통제집단 사후 점수 비교: 맨휘트니 유 검증

프로그램의 시행 후에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점수를 비교한 결과, 쓰기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실험집단 $M=113.20, SD=77.35$; 통제집단 $M=176.80, SD=5.73$; $p<.05$), 읽기 유창성과 독해력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표 7 참조). 이는 프로그램의 시행 전에 저소득가정 아동 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낮은 수준이던 다문화가정 아동 집단의 두 가지 읽기능력이 프로그램 시행을 통해 향상되어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수준으로 변화되었음을 의미한다.

표 7.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후 점수 비교

(실험집단 $n=15$, 통제집단 $n=15$)

변수	집단	$M(SD)$	중위수(범위)	평균 순위	순위 합	Mann-Whitney U	Z
읽기 유창성	실험	184.00(142.33)	190(396)	12.63	189.50	69.50	-1.78
	통제	268.53(59.84)	273(209)	18.37	275.50		
독해력	실험	15.67(5.75)	15(17)	14.50	217.50	97.50	-0.63
	통제	17.47(3.46)	17(10)	16.50	247.50		
받아 쓰기	실험	113.20(77.35)	146(184)	12.00	180.00	60.00	-2.18*
	통제	176.80(5.73)	177(18)	19.00	285.00		

* $p<.05$

IV. 논의 및 결론

이 연구는 다문화가정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림책을 활용한 표현활동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실시하여 문해능력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경기도 부천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정의 1-3학년 아동 15명에게 총 17회기(출판기념회 포함)의 프로그램을 시행하였고, 동일 지역 저소득층 아동 15명을 비교집단으로 하여 읽기와 쓰기능력의 사전-사후 검사 결과를 비교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를 끌어내고 결론을 내리고자 한다.

첫째, 지역과 가정의 소득수준에 있어서 유사한 집단으로 파악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읽기와 쓰기능력이 유의하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즉, 다문화가정의 아동들이 일반 저소득가정의 아동들보다 읽기 유창성, 독해력, 받아쓰기 능력이 유의하게 낮았다. 이는 한국어 능력이 부족한 부모에 의한 양육과 풍부하지 못한 문해환경으로 인해 다문화가정 아동의 문해발달 지연이 심각함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새로운 환경의 문자언어에 능숙하지 않은 다문화 양육자는 자녀에게 제공하는 언어 경험에 한계를 가진다(McGee & Richgels, 1996). 부모 스스로가 새로운 언어에 적응하는 과업이 버거운 상황에서 급속하게 자라는 자녀에게 적합한 언어지도를 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가정의 문해환경이 결핍되면 아동의 문해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데(김수희, 2003; 성미영, 김정현, 박석준, 정현심, 권윤정, 2010; 채혜경, 2008; Lonigan et al., 1999). 다문화가정의 부모들이 풍부하지 못한 문해환경을 구성

하는 배경에는 경제적 어려움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이들은 새로운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하며 가르치기 위한 정보의 부족을 경험하기 쉽다(최나야 등, 2009). 따라서 자녀의 발달단계에 적합한 문해환경에 대해서도 잘 모를 가능성이 높다. 뿐만 아니라, 다문화가정 아동들이 초등학교 취학 전후에 적합한 언어 중재를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하기 때문에(윤준채, 송영복, 2010), 일반 저소득층 또래들에 비해 더 낮은 수준의 문해능력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둘째, 그림책 활용 표현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한 다문화가정 아동들은 읽기 유창성, 독해력, 받아쓰기에서 모두 향상된 점수를 보였고, 특히 읽기 유창성과 독해력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성취가 나타났다. 따라서 이 연구는 언어발달에 곤란을 겪는 다문화가정 아동을 위한 중재 프로그램으로 그림책을 활용한 프로그램의 적합성을 제안하거나 보여준 연구들(김민화 등, 2010; 선애순, 권순황, 2010; 왕한석, 한건수, 양명희, 2005; 황상심, 2008)과 동일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Chall(1983)의 읽기발달단계에 따르면, 초등학교 2-3학년 시기는 제2단계에 해당한다. 초기 읽기 및 문자해독단계인 제1단계 이후에 충분한 읽기자료를 제공받지 못한 아동들은 2단계에서 주춤거리기 시작한다. 읽기곤란을 겪는 많은 아동들은 이 단계에서 심각한 지체를 보이게 된다. 2단계의 유창성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어휘나 내용이 친숙한 자료를 계속 읽는 것이 필요하므로, 동화나 민담과 같이 주제나 구조가 친숙한 책을 사용해야 한다(김동일, 2000). 따라서 이 프로그램에서 2-3학년

참여 아동들에게 그림책을 텍스트로 제공한 것은 적합하다. 문해환경의 결핍을 경험하는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아동들이 순조로운 읽기 발달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적절한 읽기자료를 제공하는 중재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비록 이 연구에서는 2-3학년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였지만, 저소득층 아동이 이러한 중재에 참여한 경우에 언어능력 향상의 효과가 지속적이라는 점에서(박찬화, 김명순, 2010), 예비 초등학생 및 1학년 아동들에게 가능한 한 일찍부터 중재를 실시할 필요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셋째, 그림책 활용 표현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한 다문화가정 아동들의 읽기 유창성과 독해력이 통제집단 수준으로 크게 향상되었다. 비록 통제집단의 읽기 유창성 점수 역시 4개월 동안 유의하게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 시행 후 실험집단의 읽기능력이 보다 큰 폭으로 상승하여 두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가 사라졌다. 이는 중재 프로그램을 통해 다문화가정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오는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통제집단 역시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아동들이었으므로, 가정의 소득수준에 따른 중재효과는 분석되지 않았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앞으로 동일한 프로그램을 저소득층과 중산층 가정 아동들에게 적용하여 효과를 비교하는 추수연구가 가능할 것이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성인이 참여 아동들에게 그림책을 읽어주고, 내용과 표현기법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미술적 기법을 활용하는 표현활동을 실시하였다. 또한 소집단

별 토론을 통해 이야기를 구성하여 이를 창의적인 글과 그림으로 표현하여 그림책을 만들었다. 따라서 참여 아동들의 입장에서 듣기, 말하기, 그리기와 만들기가 활동의 대부분을 차지했다고 볼 수 있다. 즉, 전체 과정에 아동의 읽기 유창성과 독해력 또는 철자 쓰기능력을 직접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반복 연습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 시행 후에 두 가지의 읽기검사 점수가 큰 폭으로 향상되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아동 스스로 소리 내어 읽기 또는 혼자 읽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인의 읽어주기와 심미적 표현활동을 통해 아동의 문해능력이 향상될 수 있다는 효과(정복희, 2008; 채종옥, 1995; Morrow, 1988a, 1988b)가 읽기 영역에서 나타난 셈이다.

반면, 받아쓰기에서의 점수 향상은 상대적으로 미약한 수준으로 프로그램이 끝난 후에도 두 집단 간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이 결과를 통해 아동이 철자와 구두점을 정확히 쓰는 능력은 보다 명시적인 교육과 연습을 통해서 향상 가능하다고 예측할 수 있다. 그림책을 활용한 표현활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이 프로그램에서는 받아쓰기 능력보다는 생각을 자유롭게 글로 나타내는 창의적인 글쓰기 능력이 더 많이 자극되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받아쓰기가 부진한 초등학교 1-2학년 아동들의 특성을 살펴본 연구(안성우, 김자경, 서유경, 김기주, 신영주, 2006)는 받아쓰기 부진을 설명하는 요인이 음운인식임을 밝히고, 명시적 음운지도를 통해서 철자쓰기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림책을 활용했던 이 연구의 프로그램에는 음운지도가 전혀 포함되

지 않았으므로, 참여아동들의 받아쓰기 점수 향상은 크게 기대하기 힘들었다고 본다. 다문화가정 아동들의 음운인식능력은 외국 출신 부모의 한국어능력으로 인해 지체되는 경향을 보인다(박상희, 2009; 유현주, 2008; 최현옥, 황보명, 2009). 이 연구에서 다문화가정 아동들의 받아쓰기 점수가 일반아동들에 비해 크게 떨어지게 나타난 것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다문화가정 아동들의 철자쓰기능력 향상을 목표로 하는 중재프로그램에는 명시적인 음운지도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본다.

정리하면, 그림책 활용 표현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한 다문화가정 아동들의 읽기능력이 통제집단 수준으로 향상되었으며, 쓰기능력의 향상도 이루어졌으나 읽기에 비해서는 효과가 약하다. 따라서 그림책 활용 표현능력 프로그램은 문해능력, 그 중에서도 읽기능력 향상에 매우 효과적인 프로그램이라고 결론내릴 수 있다. 특히 이 연구는 가정의 소득수준이 서로 유사한 다문화가정 아동들과 일반 아동들의 문해능력을 프로그램 시행 전후에 비교함으로써 보다 정교하게 프로그램의 효과를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또한 지역사회와 대학 기반의 봉사활동으로 이루어진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아동들과 그 가족들, 그리고 진행자들이 표현한 만족도를 고려할 때, 앞으로 더 많은 다문화가정 아동들에게 확대 시행될 수 있는 내용의 프로그램이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몇 가지의 제한점을 지니고 있다. 이에 대해 논의하고 후속연구를 위해 제안을 한다면 다음과

같다. 우선, 이 연구에서는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모두 열다섯 명씩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검사결과를 비모수분석하였다. 따라서 일반화를 위해서는 더 큰 규모의 집단에게 동일한 내용의 프로그램을 적용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이 연구에서 읽기와 달리 쓰기능력의 유의한 향상이 나타나지 않은 점이 매우 아쉽다. 읽기능력만이 아닌 쓰기를 포함한 문해능력의 향상에 초점을 맞춘 중재 프로그램을 다문화가정 아동들에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내용의 보완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위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명시적인 음운지도와 철자지도가 활동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소수의 받아쓰기 문항을 구성하여 적용한 이 연구와 달리, 연령에 적합한 표준화된 쓰기능력 검사 및 창의적 쓰기에 대한 검사 도구를 사용하여 보다 세부적이고 정확한 평가를 실시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참고문헌

- 강희양, 김태호 (2011). 언어발달 프로그램이 다문화가정 유아의 언어, 인지발달 및 유아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연구*, 12(2), 523-537.
- 곽철호 (2009). 초등학교 어휘 이해 능력 실태 분석을 통한 어휘 지도 방법 고찰 - 일반 아동과 다문화가정 아동 어휘 이해 능력 비교를 중심으로 -. *문법교육*, 11, 79-117.
- 교육과학기술부 (2010). 다문화가정 학생 현황. <http://www.mest.go.kr/web/1111/ko/board/view.do?bbsId=150&boardSeq=14710>.

- 권순희 (2006). 다문화가정을 위한 언어 교육 정책 모색. *국어교육학연구*, 27, 223-251.
- 권순희 (2007). 다문화가정 자녀의 상담 지도 사례. *국어교육학연구*, 29, 127-174.
- 권희연, 이미숙, 전병운 (2010).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발달에 관한 연구 문헌 분석. *한국지체부자유아교육학회지*, 53(4), 283-306.
- 김갑성 (2006). 한국 내 다문화가정의 자녀교육 실태조사 연구. *청소년문화포럼*, 18, 58-93.
- 김동일 (2000). 기초학습기능 수행평가체제 - 읽기검사 검사요강. 서울: 학지사.
- 김동일, 홍성두, 구연정 (2008). 초등학교 저학년 쓰기 저성취 아동 진단을 위한 쓰기 능력 변인 탐색. *특수교육학연구*, 43(1), 109-126.
- 김민화, 남명자, 고태순, 정지나 (2010). 그림책을 활용한 다문화가정 지원 프로그램이 아동의 언어, 사회성, 자아개념 발달과 가정환경에 미치는 효과. *어린이 문학교육연구*, 11(1), 67-84.
- 김수희 (2003). 아동의 읽기 유창성과 가정 문해 환경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문혁준, 최윤경, 서소정 (2009). 다문화가정 아동. *아동학회지*, 30(6), 85-97.
- 박상희 (2009). 다문화가정 아동의 조음산출에 관한 종단적 연구. *언어치료연구*, 18(1), 89-97.
- 박찬화, 김명순 (2010). 그림책읽기 언어중재프로그램이 저소득 가정 아동의 언어능력에 미치는 종단적 영향. *아동학회지*, 31(3), 117-138.
- 배소영, 김미배 (2010). 초등 저학년 다문화가정 아동의 읽기와 언어. *언어청각장애연구*, 15, 146-156.
- 보건복지가족부 (2007). 결혼이민자 가족 실태조사 및 중장기 지원정책 방안연구. 보건복지가족부.
- 보건복지가족부 (2010). 2009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보건복지가족부.
- 선애순, 권순황 (2010). 그림동화책 읽어주기가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능력 향상에 미치는 효과. *특수아동교육연구*, 12(2), 255-272.
- 성미영, 김정현, 박석준, 정현심, 권윤정 (2010). 다문화가정 유아의 언어능력과 가정문해 환경. *아동교육*, 19(4), 33-47.
- 안성우, 김자경, 서유경, 김기주, 신영주 (2006). 초등학교 1-2학년 받아쓰기 부진 아동의 특성 연구.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7(4), 175-193.
- 오성배 (2005). 코시안 아동의 성장과 환경에 관한 사례연구. *한국교육*, 32(3), 61-83.
- 오성배 (2006). 한국사회의 소수민족 코시안 아동의 사례를 통한 다문화 교육의 방향 탐색. *교육사회학연구*, 16(4), 137-157.
- 오성배 (2007).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교육기회 실태와 대안 모색. *인간연구*, 12, 1-15.
- 왕한석, 한건수, 양명희 (2005). 국제결혼 이주 여성의 언어 및 문화적응 실태연구. *국립국어원*.
- 우현경, 정현심, 최나야, 이순형, 이강이 (2009).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한국어능력과 유아기 자녀의 언어발달. *아동학회지*, 30(3), 23-36.

- 유향선 (1997). 유아 문어교육의 효과적 지도: 그림책 중심과 학습지 중심 교수방법의 비교 연구. 유아교육연구, 17(2), 97-117.
- 유현주 (2008). 다문화가정 아동의 조음능력 및 음운변동 특성.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윤준채, 송영복 (2010). 다문화가정 아동의 읽기 유창성 평가 및 지도. 독서연구, 23, 207-228.
- 윤희원 (2008).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다언어 한국어 교재 <초급> 연구 개발. 서울: 서울대학교 중앙다문화교육센터.
- 이수정, 신지철, 김향희, 김화수 (2008). 다문화 가정 아동의 표현어휘능력 연구 - K-BNT-C를 중심으로. 언어치료연구, 17(3), 95-115.
- 이혜경 (2005). 혼인이주와 혼인이주가정의 문제와 대응. 한국인구학, 28(1), 73-106.
- 정복희 (2008). 동화책 읽어주기 접근법이 유아의 문해능력과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 조선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정은희 (2004). 농촌지역 국제결혼 가정 아동의 언어발달과 언어환경. 언어치료연구, 13(3), 33-52.
- 조미정, 정은희 (2009). 독서활동이 다문화가정 아동의 독해력에 미치는 효과. 언어치료연구, 18(3), 213-229.
- 조영달 (2006).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 지원 대책. 교육인적자원부.
- 조영달, 윤희원, 박상철 (2006). 다문화가정의 자녀 교육 실태 조사 연구. 교육인적자원부 정책연구.
- 채종옥 (1995). 동화책 읽어주기 접근법에 따른 유아의 반응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채혜경 (2008). 결혼이민자가정 유아의 문해능력과 가정문해환경. 아동학회지, 28(4), 73-95.
- 최나야, 우현경, 정현심, 박혜준, 이순형 (2009). 영유아기 자녀를 둔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7(2), 255-268.
- 최현옥, 황보명 (2009). 다문화가정 이주여성의 한국어능력이 자녀의 한국어능력 발달에 미치는 영향.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10(4), 315-329.
- 한유진 (2000). 그림동화책 읽기에서 유아와 어머니의 언어적 상호작용 전략과 유아의 이야기 구성능력.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황상심 (2008). 농촌지역 다문화가정 아동들의 언어 특성 연구. 대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Adams, M. J. (1990). *Beginning to read: Thinking and learning about print*. Cambridge, MA: MIT Press.
- Chall, J. (1983). *Stages of reading development*. NY: McGraw-Hill.
- Cooney, C., & Hay, I. (2005). Internet-based literacy development for middle school students with reading difficulties. *Literacy Learning: The Middle Years*, 13, 36-44.
- Lonigan, C. J., Bloomfield, B. G., Anthony, J. L., Bacon, K. D., Phillips, B. M., & Samwel, C. S. (1999). Reflections among emergent literacy skills, behavior problems, and social

- competence in preschool children from low- and middle-income backgrounds. *Topics in Early Childhood Special Education*, 19, 40-53.
- Mason, J. (1992). Reading stories to preliterate children: A proposed connection to reading. In P. B. Gough, L. C. Ehri, & R. Treiman(Eds.), *Reading acquisition* (pp.215-241). Hillsdale, NJ: Erlbaum.
- McGee, L. M., & Richgels, D. J. (1996). *Literacy beginnings: Supporting young readers and writers*(2nd ed.). Boston: Allyn & Bacon.
- Morrow, L. M. (1988a). Young children's response to one-to-one story readings in school setting. *Reading Quarterly*, 23, 89-100.
- Morrow, L. M. (1988b). Reading and retelling stories: Strategies for emergent readers. *The Reading Teacher*, 38, 870-875.
- Thiele, Y. (2010). 그림책의 새로운 서사 형식. 지광신 등(역). 마루벌. (원본발간일, 1990).

1 차원고접수 : 2012. 4. 4
수정원고접수 : 2012. 5. 10
최종게재결정 : 2012. 5. 31

The Effects of an Expressive Activities Program Using Picture Books on the Literacy Abilities of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Naya Choi

Dept. of Child & Family Studies,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This study was conducted to verify the effects of an expressive activities program using picture books on the literacy abilities of multi-cultural children. Fifteen second and third grade elementary school student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in Bucheon participated in this program. Their reading and writing abilities were tested before and after the whole program and compared with the scores of peers from low income families. The participants explored the texts and representation techniques of selected picture books and created their own picture books over 16 weeks. The results of Mann-whitney-U test and Wilcoxon signed-rank test are as follows. Before the program was implemented, multi-cultural children showed lower reading fluency, reading comprehension, and dictation scores than the comparative group. After the whole session was complete, however, the experimental group had significantly improved in terms of their reading fluency and reading comprehension. They had therefore caught up with the comparative group in two reading abilities, despite a gap persisting in dictation scores. In conclusion, an expressive activities program using picture books is an effective method, especially for improving the reading abilities of multi-cultural children.

Key words : picture books, expressive activities program,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ies, literacy abilities